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An Ecological Study on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Nonmaternal Care*

혜전대학 아동복지과
전임강사 양 연 숙

Dept. of Child Welfare, Hyejeon College
Full-time lecturer : Yang, Yeon Su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infant, mother/family, and nonmaternal care characteristics contribution to infant-mother attachment through ecological perspective. Participants were forty 12-to 18-month-old infants and their mothers. Infants were observed in the Strange Situation to assess the pattern of infant-mother attachment; the Observational Ratings of the Caregiving Environment was used to assess the caregiving environment. Mothers were interviewed with the questionnaires, and observed in the laboratory "living room".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maternal sensitivity/responsiveness and good quality child care on secure attachment. Infant, mother/family, and nonmaternal care characteristics were mutually related.

주제어(Key Words): 타인양육(nonmaternal care), 애착(attachment)

I. 서론

생후 초기에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관계가 이후 발달의 초석이 된다는 애착이론에 의해 어머니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타인양육이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자녀관계에 갖는 위험요소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Brazelton(1985)은 아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켜 안정적인 관계 발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Sroufe(1988)는 일상적 격리는 영아로 하여금 부모의 활용과 반응성에 대한 확신을

* 본 논문은 2001년도 혜전대학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됨

없이 하게, '영아-양육자 상호작용 체계의 조화 (ongoing tuning of the emerging infant-caregiver interactive system)'를 해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견해를 증명하듯 여러 연구 (Belsky, 1986; Belsky & Rovine, 1988; Lamb & Sternberg, 1990)에서 일상적 타인양육과 낮은 상황에서 측정된 불안 애착 반응 증가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고 있다. 영아기 타인양육과 애착 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다학문 분석에서 Belsky와 Rovine(1988)은 첫째에 주당 20시간 타인양육을 받은 영아는 보다 제한된 보육경험을 가진 영아보다 불안 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여러 연구에서도 초기 광범위한 보육으로 정의되는 생후 첫째 주당 20시간 이상의 타인양육이 영아-어머니 불안 애착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Egeland & Hiester, 1995; Lamb & Sternberg, 1990). 그러나 상반된 주장들(Clark-Stewart, 1989;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Phillips & Howes, 1987)도 상당수 있어서, 타인양육 경험이 영아의 심리적 건강에 결정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생의 초기 어머니와 격리되어 타인양육되는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타인양육 특성뿐만 아니라 영아 자신의 특성, 어머니 및 가정의 특성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아동의 발달에 부모가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와 아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동과 관련된 여러 환경들간의 상호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아동의 발달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설명되고 있다 (Jaeger & Weinraub, 1990;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첫 번째는 타인양육이 영아에게 모성 격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모성 격리 모델(maternal separation model)이다. 연구자들은 일상적 격리 경험이 영아로 하여금 어머니의 부재를 거부로 해석하거나 적어도

어머니의 유용성과 반응성에 대한 의심을 가져오게 한다고 주장하며(Barglow, Vaughn, & Molitor, 1987; Schwartz, 1983), 이러한 어머니의 거부와 심리학적 비유용성 및 무반응성은 불안정한 애착의 선행요인임을 밝히고 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모성 격리 모델은 동물행동학적 애착이론으로부터 추출되었으며, 어머니 부재에 대한 영아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 영아 특성, 그리고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을 주요 변인으로 다룬다.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 중 생의 초기에, 장기간,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어머니의 부재는 영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어머니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여 애착 형성에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Bowlby, 1973; Belsky, 1986; Lamb & Sternberg, 1990). 또한 타인양육자의 민감성(Howes, Galinsky, & Konote, 1998)과 안정성(Clark-Stewart, 1987)과 같은 타인양육 특성이 영아의 어머니 부재에 대한 반응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된다.

어머니와의 격리 및 타인양육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영아의 개인차 또한 영아-어머니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격리 상황에서 보다 스트레스를 느끼며 상대적으로 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며(Belsky & Rovine, 1988;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영아의 기질과 애착간의 유의한 상관도 보고되고 있다(Goldsmith & Alansky, 1987; Vaughn et al., 1992; 박응임, 1995; 이정희, 1994).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은 영아-어머니 애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양육이 미치는 영향을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Isabella, 1993; Kochanska, 1998, Jaeger & Weinraub, 1990). 국내 연구에서도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는 영아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반응하며, 민감하고, 일관성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응임, 1994; 장미자, 1998).

초기 타인양육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번째 모델은 양육의 질 모델(quality of mothering model)이다. 양육의 질 모델

은 어머니의 취업 혹은 부재가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차례로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 낯선 상황에서 애착 유형을 분류하고, 애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을 조사한 Ainsworth(Ainsworth et al., 1978)의 실험적 연구에 기초한다. 생후 첫째 전반에 걸친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대한 중단연구에서 Ainsworth와 동료들(1978)은 안정 애착아의 어머니가 불안 애착아의 어머니보다 영아의 신호에 보다 민감하고, 좀더 협동적이며, 보다 수용하는 심리학적적으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타인양육 특성이나 아동 특성 외에도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 삶의 질, 가족 역동성, 그리고 어머니의 태도와 인성 특성 등을 주요 변인으로 다룬다(Belsky, 1990; Clarke-Stewart, Gruber, & Fitzgerald, 1994).

어머니 삶의 질은 어머니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가장 잘 반영된다. 역할 만족감이 어머니의 취업 상태보다 아동의 산출을 보다 잘 예측하며(Lerner & Galanbos, 1988; Belsky, & Rovine, 1988). 반대로 역할 갈등, 양육스트레스 등은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불안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einraub, Jaeger & Hoffman, 1988).

가족 체계는 타인양육 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그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의 역할이 맞벌이 가족에서는 중요하다.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양육 및 가사 활동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와 지지는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아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Belsky, 1986; Owen & Cox, 1988). 또한 취업모에게서 보고되는 낮은 결혼 만족은 불안 애착 비율을 보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lsky & Rovine, 1988; Crnic et al, 1983).

어머니의 태도 및 인성 특성 또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태도와 인성 특성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태도와 인성 특성을 지닌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적절

한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lsky & Vondra, 1993; Bettes, 1988).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는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Belsky & Rovin, 1988; Benn, 1986).

본 연구에서는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모델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영아의 특성, 어머니/가족 특성, 타인양육 특성 변인을 추출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영아의 특성으로는 영아의 성과 기질을, 어머니/가족 특성으로는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함께 어머니 역할 만족도, 양육스트레스, 결혼 만족, 남편의 지지와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를, 타인양육 특성으로는 타인양육의 질, 양, 시작시기, 안정성과 유형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이 타인양육 환경 아래 놓여진 영아의 애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이들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중재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에 작용하고 있는 기제(mechanism)와 과정을 밝히고, 어머니-영아 애착 형성에 바람직한 가정 및 타인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 유형에 따라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 유형에 미치는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3. 타인양육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주 20시간 이상 타인양육을 받고 있는 12-18개월 영아 40명(남아 19명, 여아 21명)과 그들의 어머니 및 타인양육자이다. 영아가 양육자에 대하여 분명한 애착을 형성하려면 1세가

되어야 하고, 이 시기 영아는 기저나 걸으면서 중요 애착 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과 접촉을 이루고 유지하려는 능동적인 애착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Ainsworth 등, 1978) 12-18개월 영아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영아는 정상분만아로서 출산 전이나 출산 후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졌거나 최근 2달 안에 입원 등 심하게 앓은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영아의 가족이 편부모 가족이거나 부모가 이혼 및 별거 상태가 아니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류층인 가족으로 연구의 대상을 제한하였다. 또한 영아는 다양한 타인양육 형태(조부모,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양육, 놀이방 및 어린이집)에서 현재의 타인양육자에게 2개월 이상 양육받고 있는 영아로 선정하였다. 이는 타인양육을 미치는 영향이 2개월 이상의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는 선행연구(Clark-Stewart, 1987; McCartney, 1984)에 의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아과, 어린이집, 놀이방을 통하여 본 연구의 조건에 맞는 가정을 소개받아, 각 가정에 연구의 취지와 참여를 부탁하는 편지와 전화로 연구협조를 의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의 평균연령은 15.8개월($SD=2.2$)이었고, 어머니의 연령은 25세에서 38세로

평균 30.4세($SD=3.4$)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25명(62.5%)으로 고졸 9명(22.5%), 대학원졸 6명(15.0%)보다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직 16명(40.0%), 사무직 15명(37.5%), 판매서비스직 6명(15.0%), 기타 3명(7.5%)이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28명은 종일제로 근무하였으며, 4명(10.0%)은 반일제, 8명(20.0%)은 파트타임제로 일하였다. 연구대상 영아의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및 절차

1)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실험

Ainsworth(1978)에 의하여 애착 제어 체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개발된 낯선상황을 실시하였다. 낯선상황은 3분짜리 에피소드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피소드는 영아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애착 인물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을 조직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트레스의 양을 점차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실험은 대학의 실험실을 사용하였으며 CCD 카메라를 관찰실에서 조작하여 영아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를 이동하며 방안의 상황을 촬영하였다. 애착유형은 두 번의 재결합 에피소드(에피소드 5와 8)에 있어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상호작용 행동지표가 되는 접근과 접촉추구행동, 접촉유지행동, 회피행동, 저항행동 4개의 변인을 7점 척도로 평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Ainsworth 등(1978)의 증거에 따라 안정 애착(B), 불안회피 애착(A), 불안저항 애착(C)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영아의 애착 유형 분류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연구자와 함께 양연숙(2000) 연구에서 타인양육 영아의 낯선상황 실험 상황을 녹화한 10명의 애착행동을 반복 관찰하면서 평정점수가 일치하도록 훈련하였다. 영아의 상호작용 행동 변인인 접근과 접촉추구행동, 접촉유지행동, 회피행동, 저항행동 각각의 변인에서 .85-.97의 신뢰도를 나타내었고, 애착 유형 분류에서는 98%의 일치를 나타내었다. 이후 애착 분류는 분석자의 두 번의 반복 관찰을 통하여 분석되었으며, 애착 유형을 판별하기

<표 1> 연구대상 영아의 타인양육 특성

변인	구분	빈도(%)
격리시간	40시간미만	8(20.0)
	40-60시간 미만	16(40.0)
	60시간 이상	16(40.0)
격리규칙성	규칙적	27(67.5)
	불규칙적	13(32.5)
타인양육시작시기	출생후	14(35.0)
	6개월이전	19(47.5)
	6개월이후	7(17.5)
타인양육유형	혈연	21(52.5)
	비혈연	19(47.5)
타인양육안정성	0회	22(55.0)
	1회	10(25.0)
	2회이상	8(20.0)

모호한 사례는 연구자와 다시 관찰하며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자의 초기 10개의 사례에 대한 재검사신뢰도는 각 행동변인에 대해서 .82-.96이었으며, 애착 유형 분류에서는 100% 일치하였다.

2) 타인양육 특성 관찰 및 면담

타인양육의 질은 다양한 타인양육 유형을 받고 있는 영유아의 양육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NICHD 연구(1996)에서 개발된 양육환경 관찰 척도(Observation Record of the Caregiving Environment)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양육환경 관찰 척도는 기존의 양육환경 척도와는 달리 조부모, 혈연, 비혈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육에서부터 가정 및 기관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양육까지 다양한 타인양육 유형에서 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타인양육의 질 관찰은 타인양육 장소를 방문하여 영아와 타인양육자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관찰은 10분씩 4번의 행동관찰과 마지막 4분의 질적 평정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2주 이내의 기간 안에 4회 실시하게 되어있다. 관찰자는 양육자가 영아에게 보이는 행동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양육행동 관찰척도에 기초하여 각 10분마다 30초 관찰과 30초 기록을 반복하며, 그 동안의 관찰에 기초하여 양육의 질을 4점 척도로 평정한다(구체적인 내용은 양연숙, 2000 참조). 1, 2차 관찰은 오전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어머니가 오후에 출근하는 경우(2명) 오후에 관찰하였다. 각 영아당 관찰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5.37시간(SD=1.32)이었다. 타인양육의 질은 일상적 및 고통 상황에서의 민감성 및 반응성, 긍정적 관심, 인지발달 자극, 분리(역채점), 무미건조한 정서반응(역채점) 각 영역마다 4점척도를 이용하여 질적 평정된 점수를 합해하여 산출한다. 타인양육의 질 관찰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3명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과 가정의 타인양육 상황을 담은 각각 2개의 비디오테이프를 반복 관찰하면서 평정점수가 일치하도록 훈련하였으며, 이후 어린이집과 가정 각각 2곳을 방문하여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비디오인 경우 .67-.85,

현장인 경우 .71-.89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 및 타인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격리시간, 격리빈도, 격리 규칙성과 타인양육 시작시기, 타인양육유형, 타인양육의 안정성이 측정되었다.

3)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실험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Kochanska(1998)가 고안한 에피소드의 시간과 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낮선 상황을 마친 어머니와 영아는 다른 실험실로 이동하며, 5분마다 연구자의 언어적 제안이나 놀잇감이 든 바구니 및 질문지 등의 제시를 통해 4가지 에피소드 상황에 놓여진다: 에피소드 1. 어머니는 영아에게 간식을 먹인다. 에피소드 2. 어머니는 놀잇감을 가지고 영아와 함께 논다. 에피소드 3. 어머니는 질문지를 작성한다. 에피소드 4. 어머니는 영아가 놀잇감을 정리하도록 한다. 실험실은 네모난 방의 중앙에 1.5×2m의 카페트를 깔고, 낮은 테이블을 준비한 후 어린이용 쇼파, 커튼, 그림 등으로 일상적인 공간처럼 꾸며졌으며, 한쪽 벽에는 실험실로 들어온 어머니와 영아가 바로 에피소드 1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과자, 음료, 접시와 컵을 배치하였다.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은 영아가 보내는 고통, 신호, 요구에 대하여 어머니가 보이는 즉각적이고 민감하면서도 진지하고, 수용적이며, 정서적으로 유용성을 지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은 Kochanska(1998)가 사용한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평정되었다. 첫째,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중에서 '영아관련 사건'을 1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영아관련 사건이란 영아가 시도하거나 주도하는 행위로서 어머니에게 신호나 반응을 요구하는 특정 사건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고통, 주의를 끌려는 시도, 영향력 시도, 도구적 도움 요구, 생리적 신호를 영아관련 사건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둘째, 영아관련 사건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각각의 반응을 평정하였다. 어머니의 행동은 빈약한, 보통, 좋은, 뛰어난으로 평정되었다. 각 반응은 빈약한 -2, 보통 -1, 좋은 +1, 뛰어난 +2로 점수화하였다. 셋째, 같은 범주에 속한 영아관련 사건에 부

여된 점수가 합해진 후 각 범주별 사건 수에 의해 나누어져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점수가 산출되었다.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상호작용의 질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연구자와 함께 양연숙(2000) 연구에서 어머니 상호작용 상황을 녹화한 10사례를 반복 관찰하면서 평정점수가 일치하도록 훈련하였다. 아동 관련 사건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78-.81이었으며, 각 사건에 대한 평정은 .84-.89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이후 분석은 분석자의 두 번의 반복관찰을 통하여 분석되었으며, 상호작용 상황 분석이 모호한 사례는 연구자와 다시 관찰하며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자의 초기 10개 사례에 대한 재검사 신뢰도는 아동관련 사건에서 .74-.85, 각 사건에 대한 평정에서 .83-.91이었다.

4) 영아 및 어머니/가족 특성에 관한 질문지

영아 특성은 성과 기질로서,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Fullard, McDevitt와 Carey(1984)의 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TTQ)를 최영희(1989)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세에서 3세까지의 영아의 기질을 어머니의 보고를 통하여 측정하는 질문지로 9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 문항 수는 97개로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까다로운 기질 유형 분류시 이용되는 생리적 규칙성(Cronbach $\alpha=.78$), 접근성(Cronbach $\alpha=.79$), 적응성(Cronbach $\alpha=.70$), 반응강도(Cronbach $\alpha=.73$), 기분(Cronbach $\alpha=.71$) 5개 영역 5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영아의 기질을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및 가족특성은 어머니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어머니 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가족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지지, 그리고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역할만족도는 현온강·조복희(1994)에 의해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진 부모역할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인 일반적인 만족도 11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Cronbach $\alpha=.90$),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문항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23문항,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87$). 결혼 만족도는 Schumme과 동료들(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를 수정한 정현숙(1997)의 RKMSS 4문항 7점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 $\alpha=.89$). 남편의 지지와 어머니됨에 태도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 정서적 지지 및 행동적 지지로 구성된 11문항 5점척도(Cronbach $\alpha=.82$)와 자녀출산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묻는 15문항, 5점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81$). 이들 어머니/가족 특성 변인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변수들의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빈도, 백분율 및 평균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 유형과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

낮선 상황에서 어머니와의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나타난 영아의 행동을 기초로 Ainsworth 등(1978)의 애착 분류 준거에 따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을 분류한 결과, 전체 40명 중 안정 애착이 25명(63%), 불안회피 애착이 9명(23%), 불안저항 애착이 6명(15%)으로 나타났다.

1)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유형과 영아 특성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유형별로 남아, 여아 분포가 유사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표 2〉 영아의 성에 따른 영아-어머니 애착유형 빈도(%)

영아의 성	애착유형			계
	〈유형A〉 불안회피	〈유형B〉 안정	〈유형C〉 불안저항	
남아	5(23.8)	13(61.9)	3(14.3)	21(100.0)
여아	4(21.0)	12(63.2)	3(15.8)	19(100.0)
계	9(22.5)	25(62.5)	6(15.0)	40(100.0)

$\chi^2=0.102$ df=2 NS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유형과 영아의 기질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불안저항 애착아가 평균 3.53(SD=.41)으로 기질적으로 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안정 애착아 3.36(SD=.30), 불안회피 애착아 3.31(SD=.36)이었다. 그러나 애착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2.45, NS).

2)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유형과 어머니/가족특성

애착유형에 따라 어머니/가족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표 3). 특히 어머니역할만족, 결혼만족,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변인은 안정애착아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안정 애착아의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과 결혼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높고, 영아와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안저항 애착아의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역할만족은 안정 애착아의 어머니만큼 높았으나, 결혼만족과 상호작용의 질에서 불안회피 애착아 어머니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유형과 타인양육 특성

타인양육 특성 중 타인양육의 질과 양은 영아-어

〈표 3〉 애착유형별 어머니/가족특성에 대한 평균 및 일원변량분석

어머니/가족 특성	애착유형			F	Duncan
	〈유형A〉 불안회피 평균(SD)	〈유형B〉 안정 평균(SD)	〈유형C〉 불안저항 평균(SD)		
어머니역할만족	3.08(0.43)	3.58(0.56)	3.56(0.63)	5.53**	A<B=C
양육스트레스	2.75(0.48)	2.74(0.63)	3.08(0.86)	1.44	
결혼만족	4.78(0.36)	5.81(1.60)	5.04(1.58)	3.47*	A<B=C
남편의 지지	3.78(0.60)	3.47(0.76)	3.50(0.85)	1.17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	3.11(0.61)	3.14(0.69)	3.13(0.66)	0.01	
상호작용의 질	4.83(1.32)	7.46(0.80)	5.54(1.81)	42.56***	A=C<B

* p<.05 ** p<.01 *** p<.001

〈표 4〉 애착유형별 타인양육특성에 대한 평균 및 일원변량분석

타인양육 특성	애착유형			F	Duncan
	〈유형A〉 불안회피 평균(SD)	〈유형B〉 안정 평균(SD)	〈유형C〉 불안저항 평균(SD)		
타인양육의 질	2.53(0.48)	2.75(0.46)	2.30(0.29)	5.50**	A=C<B
타인양육의 양	45.89(9.84)	50.68(19.45)	63.00(27.64)	4.06**	A<B=C
타인양육시작시기	2.00(0.84)	1.84(0.68)	1.50(0.52)	1.87	
타인양육 안정성	0.78(0.81)	0.64(0.90)	0.67(0.78)	0.17	

** p<.01

〈표 5〉 타인양육 유형에 따른 영아-어머니 애착유형 빈도(%)

타인양육 유형	애착유형			계
	〈유형A〉 불안회피	〈유형B〉 안정	〈유형C〉 불안저항	
혈연	3(14.3)	13(61.9)	5(23.8)	21(100.0)
비혈연	6(31.6)	12(63.1)	1(5.3)	19(100.0)
계	9(22.5)	25(62.5)	6(15.0)	40(100.0)

$$\chi^2=7.231 \quad df=2 \quad p<.05$$

머니 애착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표 4). 안정 애착아의 경우 타인양육자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양질의 양육을 받고 있었으며 불안회피와 불안저항 애착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약한 타인양육을 경험하고 있었다. 타인양육의 양에 있어서는 불안저항 애착아가 다른 애착 유형의 영아보다 타인양육을 오랜 시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유형은 타인양육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표 5). 혈연, 비혈연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영아 중 대부분은 안정 애착아에 속하였으나(61.9%, 63.1%), 불안회피 애착아의 경우 비혈연에 의해(31.6%), 불안저항 애착아의 경우 혈연에 의해(23.8%) 상대적으로 많이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의 영향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안정 애착인지 불안 애착 집단인지의 이분적(dichotomous) 성격에 따라 애착유형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예측력을 탐색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¹⁾을 실시하였다.

영아의 안정 애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수추정치(Parameter Estimate)의 정적(+) 계수는 독립변수가 각 유형의 확률을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반면, 부적(-) 계수는 그 가능성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각 변인에 대한 Wald χ^2 는 변인이 갖는 안정 애착에 대한 효과를

〈표 6〉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의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빈도(%)

	안정애착 대 불안애착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χ^2	Odds Ratio
영아 특성				
영아의 성 ^a	-1.94	15.11	0.14	0.83
영아의 기질	24.82	31.61	0.67	0.98
어머니/가족 특성				
어머니역할만족			2.80	1.05
양육스트레스	-12.55	31.82	0.87	0.88
결혼만족	11.55	13.07	1.74	1.02
남편의지지	8.28	17.06	0.96	1.01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			0.27	0.95
상호작용의 질	20.06	9.28	5.67*	1.47
타인양육 특성				
타인양육의 질	43.35	22.63	3.27*	1.13
타인양육의 양	-0.06	0.29	0.05	0.96
시작시기 ^b	15.75	10.24	0.78	0.83
안정성	1.16	8.38	0.02	1.02
유형 ^c	-3.64	11.16	0.10	0.75
상수		-445,500		
-2 Log L		105,850		
χ^2		44,552***		

^a 1=남아, 2=여아

^b 1=0개월, 2=6개월이전, 3=6개월이후

^c 1=비혈연, 2=혈연

* p<.05 *** p<.001

나타내며, Odds Ratio²⁾은 안정 애착 유형을 선택할

- 1)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란 종속변수가 범주/명명 척도로서 이분화되어 있고, 독립변수에 명명 척도 또는 서열척도와 같은 정성적인 척도와 중간척도가 섞여 있는 경우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안정 애착 대 불안 애착 집단의 이분적 성격을 지니도록 재구성되었으며, 이때 이분화된 종속변인 중 하나의 속성을 선택하는 독립변인의 선택확률을 통해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예측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 2) Odds Ratio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기대값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기대값의 비(ratio)이다. 예를들어 Odds 변화량이 5라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기대성이 일어나지 않을 기대성보다 5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Odds 변화량이 1보다 클수록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진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안정 애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타인양육의 질로서,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Wald $\chi^2=5.67, p<.05$; Wald $\chi^2=3.27, p<.05$). 즉, 어머니가 영아의 욕구나 신호에 보다 민감하고 반응적이고, 타인양육자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받는 영아가 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Odds 변화량 참조).

3. 타인양육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간의 관계

타인양육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간의 관계 살펴본 결과,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영아의 특성 중 기질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고 지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r=.36$), 타인양육시작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r=.32$).

어머니/가족 특성에서는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으며($r=-.43$), 어머니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결혼에 대한 만족도($r=.45$), 남편으로부터의 지지도 높았고($r=.45$), 혈연인 타인양육자($r=.42$)로부터 양질의 보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26$). 또한 어머니 자신의 자녀에 대한 상호작용도 매우 민감하고 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35$).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결혼전반에 대한 만족이 낮고($r=-.60$), 남편의 지지도 적었으며($r=-.40$),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있어서도 민감성과 반응성이 낮은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났다($r=-.33$).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타인양육자의 양육의 질이 낮

〈표 7〉 타인양육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간의 상호 상관 계수

	영아 특성		어머니/가족 특성					타인양육 특성							
	성	기질	역할 만족	스트레스	결혼 만족	남편 지지	태도	상호 작용	질	양	시작 시기	유형	안정성		
영아 특성															
성 ^a															
기질		-.02													
어머니/가족 특성															
어머니역할만족			-.07												
양육스트레스			-.01	.36***	-.43***										
결혼만족			.07	-.12	.41***	-.60***									
남편의 지지			-.18	-.07	.45***	-.40***	.70***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			-.05	-.14	.41***	.53***	.32**	.15							
상호작용의 질			-.19	.19	.35**	-.33**	.15	.09	.06						
타인양육 특성															
타인양육의 질			-.18	-.05	.26*	-.38***	.21	-.02	.18	.35**					
타인양육의 양			.01	.19		.07	-.01	.01	.02	.04	.19				
타인양육시작시기 ^b			.06	.32**	-.08	.06	.02	.04	.16	.09	-.14	.19			
타인양육 안정성			.12	.01	.03	.12	.03	.18	.21	-.12	-.01	-.01	-.31**		
타인양육 유형 ^c			-.11	.01	.42***	-.11	.03	.06	.20	-.08	.18	-.08	-.20		
평균			0.53	3.34	3.46	2.80	5.05	3.54	3.13	6.58	2.63	54.08	1.83	0.68	0.53
표준편차			0.52	0.34	0.58	0.64	1.46	0.74	0.66	1.61	0.47	10.99	0.71	0.85	0.50

^a 1=남아, 2=여아 ^b 1=0개월, 2=6개월이전, 3=6개월이후 ^c 1=비혈연, 2=혈연
* $p<.05$ ** $p<.01$ *** $p<.001$

을수록 더욱 가중되었다($r=-.38$). 그러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도 어머니됨에 대해서는 높은 의미를 두고 있어($r=.53$)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며($r=.70$), 어머니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2$),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은 타인양육자의 양육의 질과 긍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r=.35$).

한편, 타인양육 특성간에는 타인양육을 일찍 시작한 영아일수록 타인양육의 안정성이 낮았으며($r=-.31$), 그의 변인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20시간 이상 타인양육 받고 있는 12-18개월 사이의 영아와 그들의 양육자(어머니와 타인양육자)를 대상으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안정'(63%), '불안회피'(23%), 그리고 '불안저항'(15%)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낯선상황에서 애착 유형을 분류한 국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 분포

	N	안정 (B)	불안회피 (A)	불안저항 (C)	비조직 (D)
본 연구	40	63%	22%	15%	-
장미자(1998)	20	65%	25%	10%	0%
최해훈 등(1998)	55	57%	3%	27%	13%
나유미(1997)	41	98%	2%	0%	-
박응임(1994)	55	78%	16%	2%	4%
유효순(1985)	65	55%	29%	15%	-
NICHD 연구(1997)	1153	62%	14%	9%	15%
van Ijzendoorn 등(1992)	1584	67%	21%	12%	-
Belsky와 Rovine(1988)	149	68%	16%	15%	-
Ainsworth 등(1978)	106	66%	22%	12%	-

주목할 점은 본 연구는 주당 20시간 이상 타인양육 되고 있는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류층 비취업모를 대상으로한 Ainsworth 등(1978)과 나유미(1997)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들은 상중하 계층을 모두 포함하거나 취업모, 비취업모 가정 등 다양한 배경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 유형마다 다소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안정 애착이 가장 많고, 불안회피, 불안저항의 순으로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취업모의 경우 상호작용 시간이 적거나 부정적인 훈육 가능성을 통해 영아와의 애착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양육환경을 구성하거나(Owen & Cox, 1988; 이영·신은주·나종혜, 1995), 생의 초기 반복되는 격리 경험을 영아가 어머니의 거부로 해석할 수 있다(Jaeger & Weinraub, 1990)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타인양육 경험 그 자체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타인양육되고 있는 영아 집단 내에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애착 유형에 미치는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영아의 성과 기질과 같은 영아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가족 및 타인양육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정 애착아의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과 결혼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높고, 영아와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불안저항 애착아의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역할만족은 안정 애착아의 어머니만큼 높았으나, 결혼만족과 상호작용의 질에서 불안회피 애착아 어머니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는 영아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반응하며, 민감하고, 일관성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Isabella, 1993; Kochanska, 1998;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박응임, 1994; 장미자, 1998)와 일치된 결과이다. 안정애착아의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됨과 어머니역할, 그리고 결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심리적안녕

이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영아의 안정애착과 관련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타인양육 특성은 안정애착아의 경우 타인양육자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양질의 양육을 받고 있었으며 불안회피와 불안저항 애착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약한 타인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양육자의 양육행동에 따라 어머니와 영아간의 애착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an Ijendoorn(1990)은 영아가 어머니로부터 격리되면서 받게 된 스트레스가 타인양육자의 안정적이고 반응적인 행동에 의해 보상되어져 타인양육자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도 안정된 애착을 맺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Gamble와 Zigler(1986)은 어머니와 불안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아에게 질이 좋지 못한 타인양육 경험이 제공될 때 모-자간의 애착관계를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타인양육의 질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로부터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받고, 타인양육자로부터도 양질의 양육을 받는 영아일수록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경우 불안 애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어머니 애착이 무엇보다도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Isabella, 1993; Kochanska, 1998; 양연숙, 2000)과 일치한다. 즉 영아 신호에 대하여 어머니의 지각 및 해석 그리고 반응이 민감하고 적절할수록 영아가 안정 애착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어머니 부재시 타인양육자로부터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받을 경우 어머니 부재 및 타인양육 경험에 대해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어머니의 부재를 거부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타인양육 영아, 어머니/가족, 타인양육 특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으며,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남편, 혈연인 타인양육자로부터 지지와 양질의 보육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자신의 상호작용도 매우 민감하고 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결혼전반에 대한 만족이 낮고, 남편의 지지가 적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있어서도 민감성과 반응성이 낮은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양육자의 양육의 질이 낮을수록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역할만족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과 관련되며(Stuckey, McGhee, & Bell, 1982),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 결과적으로 불안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Weinraub, Jaeger & Hoffman, 198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남편이 제공하는 정서적·실질적 지지는 결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영아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elsky, 1986; Owen & Cox, 1988)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이것은 영아와 어머니 관계 형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강력한 요인이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또한 어머니됨과 어머니역할 및 결혼만족감이 안정애착아의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나, 현재 부모이거나 부모가 될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함께 결혼, 부모됨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실제로 어머니들은 영아가 보내는 신호나 요구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질문지 상황처럼 과제를 수행할 때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과제에 몰입하여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둔감해졌다. 이는 영아기 자녀의 신호나 요구에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이나 캠페인은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의 발달

단계 혹은 가정이 놓여진 상황(취업/비취업도 가정, 양부모/편부모 가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안정 애착에서 양질의 타인양육이 어머니의 부재가 가져오는 어머니 효능감에 대한 보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타인양육자를 대상으로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만 하여도 민감성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Howes, Galinsky, & Kontos, 1998)를 통해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양육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함께 양질의 보육 실시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 그리고 현행 규정에 대한 강화가 요구된다. 타인양육되고 있는 영아의 대부분이 보육기관보다는 가정에서 비형식적으로 돌보아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보육 유형의 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대학, 보육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TV나 잡지 등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도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표집수가 적고, 중류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응해 준 어머니와 타인양육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40명의 연구대상에서 얻은 결과가 전체 모집단의 애착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기에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그치었으나 추후연구에서는 관련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타인양육 영아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의 타인양육, 빈약한 질, 양육자의 잦은 교체가 영아가 지닌 다른 위험(예: 까다로운 기질, 남아일때)이나 어머니의 덜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과 결합할 불안 애착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의 생태계에서 주요 효과는 상호작용이다' 이라고 주장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영아특성 및 어머니/가족 특성과 타인양육 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타인양육 영아-어머니 애착형성과 영아발달의 개인차가 보다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생태학적 접근을 통하여 생의 초기 타인양육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바람직한 어머니 및 타인 양육환경에 대한 제안을 이끌어내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나유미(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응임(1994). 영아-어머니간 애착 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효순(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 신은주, 나종혜(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3(3), 165-177.
- 이정희(1994). 취업모의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최영희(1989). 기질 측정의 타당성 조사 연구. *원우총론(숙명여자대학교)*, 7, 137-154.
-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1998). 영아의 애착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 131-142.
- 현은강, 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5.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rglow, P., Vaughn, B. E., & Molitor, N. (1987). Effects of maternal absence due to employment on the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low-risk sample, *Child Development*, 58, 945-954.
-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5), 1-9.
- _____. (1990). Developmental risks associated with infant day-care: Attachment insecurity, noncompliance, and aggression? In S. Chehrazi(Ed.), *Psychological issues in day-care* (pp.37-68). New York: American Psychiatric Press.
- Belsky, J. & Rovine, M.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76.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T. Luster & L.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p. 227-250). Hillsdale: Lawrence Erlbaum.
- Benn, R. K. (1985). Factors promoting 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d mothers and their sons. *Child Development*, 57, 1224-1231.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azelton, T. B. (1985). *Working and caring*. New York: Basic Book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larke-Stewart, K. A. (1987). Predicting child development from care forms and features: The Chicago Study. In D. A. Phillips (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Research Monograph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pp.22-42). Washington, DC: NAEYC.
- Clarke-Stewart, K. A., Gruber, C. P., & Fitzgerald, L. M. (1994). *Children at home and in day-care*. Hillsdale, NJ: Erlbaum.
- Egeland, B. & Hiester, M. (1995). The long-term consequence of infant day-care and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6(2), 474-485.
- Gamble, T. J. & Zigler, E. (1986). Effects of infant day care: Another look at the evid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26-42.
- Goldsmith, H. H. & Alan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05-816.
- Howes, C. & Galinsky, E., & Kontos, S. (1998). Child care caregiver sensitivity and attachment. *Social Development*, 7(1), 25-36.
- Isabella, R. A. (1993). Origins of attachment: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cross the first year. *Child Development*, 64, 605-621
- Jaeger, E. & Weinraub, M. (1990). Early nonmaternal care and infant attachment: In search of process. In K. McCartney(Ed.), *Child care and maternal employment: A social ecology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Karraker, K. H. & Lake, M. A. (1991). Normative stress and coping processes in infancy. In E. M. Cummings, A. Greene, & K. H. Karraker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Life-span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Hillsdale, NJ: Erlbaum.
- Kochanska, G. (1998). Mother-child relationship, child fearfulness, and emerging attachment: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480-490.

- Lamb, M. E., Sternberg, K. T. (1990). Do you really know how day-care affects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 351-379.
- Lerner, R. M. & East, P. L. (1984). The role of temperament in stress coping,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early develop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5*, 148-159.
- McCartney, K. (1984). The effect of quality of day care environment up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44-260.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5), 860-879.
- Owen, M. T. & Cox, M. J. C. (1988). Maternal employmen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 (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 (pp.85-119). New York: Plenum.
- Phillips, D. & Howes, C. (1987). Indicators of quality in child care: Review of research. In D. Phillips (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pp.1-20). Washington, DC: NAEYC.
- Schwartz, P. (1983). Length of day-care attendance and behavior in eighteen-month-old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1073-1078.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Stack, D. M. & Muir, D. W. (1990). Tactile stimulation as a component of social interchange: New interpretations for the still-face effec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131-145.
- van Ijendoorn, M. H., Sagi, A., & Lambermon, M. W. E. (1992). The multiple caretaker paradox. In R. C. Pianta(Ed.), *Beyond the parent: The role of other adults in children's live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7*, 5-2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Vaughn, B. E., Hinde, J. S., Waters, E., Kotsaftis, A., Lefever, G. 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63-473.
- Weinraub, M., Jaeger, E., & Hoffman, L. (1988). Predicting infant outcome in familie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361-378.